



## 미 증시, 물가지표 결과 소폭 하락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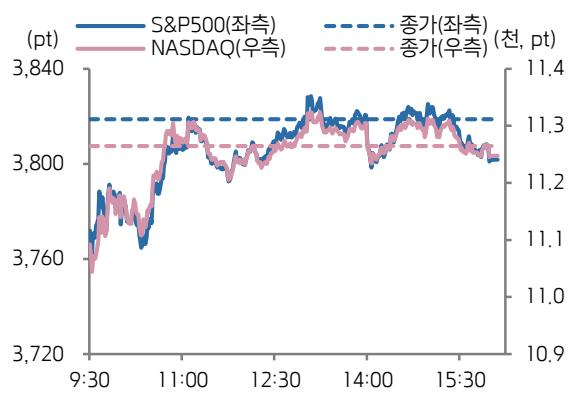
13일(수) 미국 증시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 9% 상회, 베이지북에서 물가 압력 지속 언급 등 물가 우려 확산, 연준 100bp 인상 가능성 부각된 영향으로 나스닥 2%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 확대되었으나, 이후 물가 7월 피크아웃 가능성에 주목하며 낙폭 축소 마감 (다우 -0.67%, S&P500 -0.45%, 나스닥 -0.15%, 러셀 2000 -0.12%).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9.1%(예상치 8.8%, 전월치 8.6%) 증가를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전월대비로는 1.3%(예상치 1.1%, 전월치 1.0%) 상승.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9%(예상치 5.7%, 전월치 6.0%), 전월대비 0.7%(예상치 0.6%, 전월치 0.6%) 증가. 세부 지표 상으로는 전월대비 식품 1.0%, 에너지 7.5%, 상품 0.8%, 서비스 0.7% 상승.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7.6%(예상치 7.6%, 전월치 7.9%) 상승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 유로존 5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예상치 0.3%, 전월치 0.5%) 상승하며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5월 중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고 문제로 신규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을 언급하며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추가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여행, 접객업 등 분야에서도 가격상승이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물가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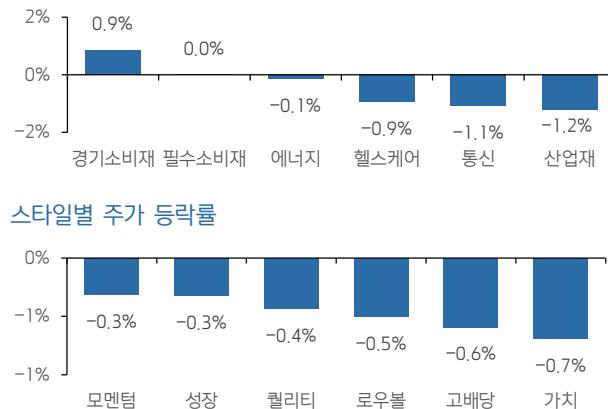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0.9%), 필수소비재(0%)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산업재(-1.2%), 통신(-1.1%), 헬스케어(-0.9%)의 낙폭이 가장 컸음. 금리 인상 우려에도 나스닥 하락폭이 제한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5% 상승, 아마존(+1.08%), 메타(+0.13%), 엔비디아(+0.54%) 등 주요 시총상위 기술주 역시 소폭 상승.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01.78	-0.45%	USD/KRW	1,306.85	-0.43%
NASDAQ	11,247.58	-0.15%	달러 지수	108.02	-0.05%
다우	30,772.79	-0.67%	EUR/USD	1.01	+0%
VIX	26.82	-1.72%	USD/CNH	6.73	-0.01%
러셀 2000	1,726.04	-0.12%	USD/JPY	137.42	+0.02%
필라. 반도체	2,577.36	+0.7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001.06	-1.3%	국고채 3년	3.210	-6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95	-4bp
Eurostoxx50	3,453.97	-0.95%	미국 국채 2년	3.155	+10.6bp
MSCI 전세계 지수	594.35	-0.29%	미국 국채 10년	2.934	-3.5bp
MSCI DM 지수	2,554.19	-0.7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67.31	-1.41%	WTI	96.3	+0.48%
MSCI 한국 ETF	57.00	+0.74%	금	1735.5	+0.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등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4.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여파</li> <li>옵션만기일로 인한 수급 변동성</li> <li>장중 원/달러 환율 흐름</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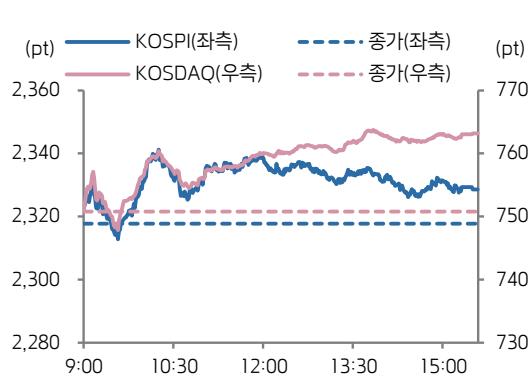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세부 항목 상 중고차(16.1%→7.1%), 신차(12.6%→11.4%) 등 한동안 가격을 끌어올렸던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5 월 34.6%→41.6%), 주거비(5.4%→5.6%) 등 대부분 주요 가중치 품목들의 상승세 지속. 특히 가솔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 주거비, 항공비 상승세 지속 등 물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근원 물가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가 우려 확산. 발표 직후 10 년물 금리 급등, Fed Watch 기준 7 월 FOMC 100bp 인상 가능성이 전일 7%대에서 40%대까지 상승하며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에 이어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반영되었지만, 이후 시장은 물가가 7 월에 피크 아웃할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한 모습.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 6 월부터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나타난 만큼 물가가 7 월에 피크아웃 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질 수 있겠으나 7 월 FOMC 까지는 100bp 인상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상태 지속, 이례적인 강달러 환경 지속되는 등 침체 우려는 아직 상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어느 섹터에서 반등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지 예측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단에서 2 분기 실적과 6 월부터 나타난 수요 둔화를 반영한 3 분기 실적 추정치 가이던스에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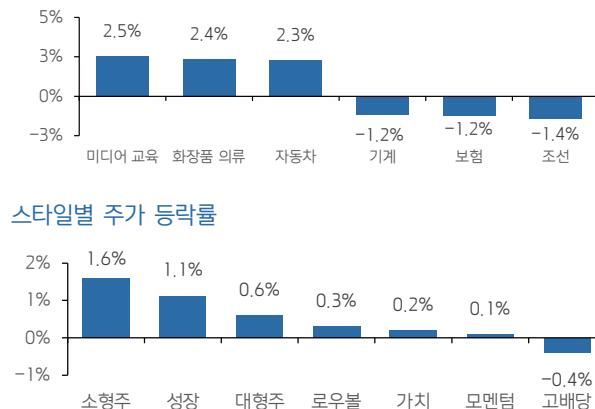
코스피는 7 월 4 일 2,270 선 연저점 경신한 이후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하며 횡보 중. 물가 불확실성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 보단 제한된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 금일 국내 증시 역시 물가지수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옵션만기일인 만큼 추가적인 수급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전일 나스닥의 낙폭이 제한되었던 점, 금통위 50bp 빅스텝 결정에도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하며 코스피가 상승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물가 우려는 가격에 어느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